광주·전남 온누리상품권 지난달 13억 어치 팔렸다

중기청, 구매촉진 캠페인 효과 … 전남 전국 2위, 광주는 부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이어지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13억원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8일 11월 초부터 유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대·중소기업 등 분야별 10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을 시작한 결과,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캠페인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1월 판매고는 전남 10억2000만원, 광주 2억4000만원 등 12억6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 팔린 75억원 가운데 전남이 13.6%, 광주가 3.3%를 각각 차지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전남은 1~10월 누계판매실적에서 전국 12위에 머물렀지만 11월 큰 성과를 내면서 전국 2위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이는 11월부터 시작된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활동과 릴레이 캠페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일 기준 전남도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3억3500만원이 팔렸고, 각 TF팀 활동과 현장 즉석판매대, 언론 홍보 등의 구매촉진 활동을 통해 3억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외에도 개인구매자와 단체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참여 등을 통해 많은 구매가 이뤄져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지역은 광주시청 외 지자체 참여 등이 부족해 전국 순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상승에 그쳤다.

온누리상품권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연말연시 포상금과 불우이웃돕기, 격려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구매자에게는 고객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 근로자 연말정산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획했던 광주·전남지역 목표량 63억원에는 못 미치고 있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기초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광주지역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은-제31사단 자매결연 광주은행은 지난 6일 지역 향토부대인 제31사단에서 김장학 은행장과 박병기 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광주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신병교육대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도 '광주은행 주식갖기 100만 서명운동'

전남도는 "지역자본으로 설립된 광주은행을 지역으로 환원하라"는 지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광주은행 주식 갖기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운동은 9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전남도는 지역 자본인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가 광주은행을 인수할 경우 자본 규모 확충 및 증자를 대비해 광주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향서 서명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정부의 입장과 매각 과정을 세밀히 지켜보면서 광주은행 인수에 지역자본이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 한 지역 금고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동안 서민금융 안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등 지역 금융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했다"며 "시장논리에 의한 매각보다는 지역 자본에 의한 지방은행의 환원이라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송년회 벌주·원샷·사발주 금지

삼성그룹, 캠페인 전개

지난해부터 건전한 사내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삼성그룹이 올 연말에도 임직원의 건강한 송년회를 위한 후속 캠페인을 진행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송년회가 집중되는 2~27일 4주 동안 '다음날 아침도 상쾌한 송년회'라는 이름의 사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다음날을 생각하지 않고 과음해 음주·숙취·해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지침도 구체적이다. 앞서 실시해온 '변화주(酒)도'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폭음을 유발하는 '벌주'·'원샷'·'사발주' 등 3대 음주 악습을 금지하고, 지나친 '건배사 제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연말이라고 행여 '이번 한 번만' 하는 생각에 음주 악습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문화를 좌우하는 부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고, 문화활동 같은 술 없는 '대안 송년회'를 유도하고 있다.

구호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나 팀별 송년회 방식을 사내 미디어인 미디어삼성에 댓글로 올리는 동참 릴레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9일부터는 매주 다섯 팀을 선정해 영화관람권과 피자 등 경품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사회적기업 판촉전 문화행사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사회적기업판촉전 문화행사에서 고객들이 '배띄워라' '진도아리랑' 등 국악가요를 선보인 고미경 명창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양적완화 유지 기대속 반등 시도 가능성

12월 첫째주 박스권 돌파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가파른 조정을 보이며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코스피지수는 1980선을 겨우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말에 발표된 미국 11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3%포인트 내린 7%로 집계됐다. 2008년 11월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고용지표 호전은 12월 17~18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이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에서 증시 참여자들은 기정사실화된 재료인 Tapering(양적완화축소)보다는 미국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 마감하였다.

이번주 국내증시는 금요일 미국증시의 상승과 지난주 비교적 큰폭의 조정에 따른 반등기대감으로 주초에는 반등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Tapering(양적완화축소)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반면 13일을 협상 시한으로 미국의회가 다시 재정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의회가 협상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5일 공개된 갤럽의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전체 유권자 지지율이 41%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협상과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행총재가 2년 후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고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위해서 일본의 추가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우려된다.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Tapering(양적완화축소), 미국재정협상, 엔저지속 우려 등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시장에 여러차례 반영된 악재이고 국내증시가 이머징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조정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 여러차례 저점으로 인식되며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인 1960선을 기반으로 반등이 예상되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과 해외악재에 상대적 영향력이 낮은 내수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협사료·광주축협, 배합사료가격 2.2% 인하

농협사료와 광주축협은 9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축종 평균 10원·Kg(포당 250원, 2.2%내외)전격 인하하기로 밝혔다. 이번 농협사료와 광주축협의 인하조치로 축산농가에게 연간 약 300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 환율과 국제곡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요인은 발생했지만 선뜻 사료가격을 인하하는 업체가 없던 상황에서 이번 인하조치는 타 사료업체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농협 박종수 본부장은" 최근 한·호주FTA 타결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이들 사료회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농협의 공익적인 역할인 사료가격 견제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세관-여행사대표 간담회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6일 관내 여행업체대표 10명을 초청,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총기류, 금괴및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여행사-세관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세관 제공〉

농어촌公 전남본부, '물살리기 수기 공모전' 시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9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내고향물살리기 학생, 주부 실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2300여편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초등부에서 김지수(목포 용호초)·이호성(해남 황산초) 학생이 전남도지사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고현지(광주 동아여중)·한원주(광주 동아여중)·박장호(영광 영광중) 학생이 광주시장상을 수상하고, 고등부 전남도지사상(우수상)에 박한솔(보성 벌교고), 광주시 교육감상에는 우현태(장성 장성고)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부부문에서는 이경화(광주시 광산구), 공사사장상(장려상)에 김명옥(광주시 동구)씨가 수상했으며 지도교사상(우수상)은 백정영(광주동아여중) 교사가 수상했다. 단체상은 광주동아여중, 정광중, 목포 용호초, 정광고에 돌아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